

2023 새해 이렇게

김성 장흥군수

“3만5000여 군민 받들어 ‘장흥 도약’ 주춧돌 놓겠다”



농·수·축·임산업 6차 산업·집단지향 조성...노력함에 고등어 산단 어머니 테마 관광자원 연계...옛 장흥고도소 복합문화공간 조성

“올해는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군정 방향으로 3만5000여 군민을 받들어 ‘장흥 도약’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김성 장흥군수는 새해 인터뷰에서 “지난해 군민들의 성원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변화와 혁신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2023년 올해는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어머니 품 장흥’의 밝은 미래를 펼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 군수는 올해 군정 주요목표를 ▲농·수·축·임산업의 6차 산업화와 품목별 집단지향 ▲2023년 관광객 500만명 달성 목표 ▲인구 4만명 회복을 위한 인구활력사업 ▲천연자원 인프라 활용한 천연물산업 육성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책임·섬김행정 구현 등을 내세웠다.

김 군수는 새해 첫날 행사로 정남진 전망대에서 통일기원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다며 지난해 11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정남진 장흥이 ‘통일 시대의 땅’임을 대내외적

으로 알리기 위해 전망대는 통일기원 탑으로 새 단장하고 이 일대를 통일 기원 동산으로 조성 남북 교류 물꼬를 여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활기찬 포부를 밝혔다.

임기 두 해를 맞은 올해는 우리군의 전형적인 농·수·축·임산업이 70%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이라며 이 분야를 6차 산업화와 집단지향 조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생산·가공·유통·체험을 연계한 6차 산업화에 투자하고 친환경 농업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또한 특산물 청정해역 갯벌산업특구를 활용, 수산업 경쟁력도 높여 나가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노력항 고등어산단(폴드체인) 유치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며 전국 최고 한우 지역으로서의 청정 환경 조화를 이루는 생태 축산단지라는 명성을 살려 나갈 방침이다.

김 군수는 올해 지향 목표로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윈윈’을 선포했다. 먼저 장흥 문백의 중심인 이정준, 한승원, 송기숙 선생 생가 복원을 통해 문화기행 특구 활성화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100여억원을 들여 구 장흥고도소를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사업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장흥댐, 천년고찰 보림사, 억불산 우드랜드, 탐진강과 토요시장, 정남진 해안도로, 도립공원 천관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 루트로 활용할 생각이다.

시대별 어머니와 세계의 위대한 어머니상을 담은 어머니 조각공원, 어머니 전시관, 어머니 로드길, 어머니 테마공원을 완성해 역사와 문화, 자유의 관광자원을 잘 엮어 민선 8기 안에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인구 문제 또한 가장 고민중의 하나라며 4만명 회복을 기뻐하고 달성한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올 1월 1일자로 ‘인구청년정책’ 기구를 신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전 행정력을 쏟아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출산, 보

육, 진학, 취업, 창업, 결혼 등 생애 주기별 지원정책으로 인구활력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접어들어 시점에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감안 노인복지 대책이 지역사회의 차지하는 비중(노인인구 40%)이 전체 삶의 질과 직결된다. 출생에서 노년까지 생애 전주기를 모니터링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 실시할 생각이다.

김 군수는 전남에 없는 ‘국립호국원’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국비로 2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했다며 5년 내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시대의 트렌드와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고장 특산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진균류 바이오 헬스 소재 상용화, 화장품 천연오일 원료추출 및 표준화기반 구축 등 출연기관과 연계해 천연물산업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끝으로 김성 장흥군수는 “군정의 중심에는 항상 군민이 있다는 신념으로 군민의 마음을 읽는 섬김 행정을 펼쳐나갈 생각이다”며 “군정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참여 기회를 넓혀 원칙 앞에는 비위처럼 버티고 시대적 변화에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올곧은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권본부장 kykim@

나주시,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본격 지원

고위험군·둘째아 이상 등 ‘소득 관계없이’ 1회당 3시간씩 5회 제공

나주시는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 전 고위험군, 다태아, 둘째아 가정 임신부의 집안일을 돕는 가사돌봄 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임신부 가사 돌봄’은 출산 후 또는 출생아 지원에 집중했던 기존 출산 지원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민선 8기 신규 시책으로 발굴됐다.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혼인 및 임신·출산 시기가 늦춰짐에 따른 고위험군 임신부 증가에 대비, 건강한 임신 생활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 6개월(21주)에서 출산 예정일까지 임신부 중 고위험군, 다태아, 둘째아 가정 등에 지원한다.

시는 1회 3시간씩 총 5회에 걸쳐 가사 전문 인력을 파견해 청소·설거지·세탁 등 각종 집안일을 도와 임신부 가정의 안정적인 임신 생활과 출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에 1억280만원을 편성해 이달 말부터 선착순 신청에 따라 임신부 300명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하반기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서비스 신청 시 거동이 불편한 임신부를 배려해 보건소 방문이 아닌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개발

중인 웹 사이트(나주헬퍼) 구축이 이달 말 완료된다.

시 보건소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번 달 ‘다소협동조합’과 ‘임신부 가사 돌봄 서비스 인력 제공 및 교육 지원 용역 입찰 계약’을 체결했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임신 전·후’, ‘출산 후’ 시기별 맞춤형 임신·출산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임신부 가정이 출산 후 뿐만 아니라 출산 전 가사 부담을 덜고 건강한 임신 생활에 영위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소득기준, 거주기간 관계없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신·출산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 새해 첫 아기, 건강하게 자라다오”

강진원 군수 축하 메시지...전국 최고 육아수당 등 지원 약속

2023년 새해, 강진군에 첫 아기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강진읍에 거주하는 박명환씨(35)와 김예현씨(32)의 둘째로, 1월 1일 오후 4시 28분, 목포 M병원에서 세상을 향한 우렁찬 첫 울음을 터뜨렸다.



강진원 강진군수가 계묘년 첫 출생아 산모인 김예현씨와 영상 통화를 갖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5일 전남 공공산후조리원(강진의료원)에서 산후조리 중인 산

모 김 씨와 영상 통화를 갖고, 아이에 대한 축복과 건강한 출산에 대해 축하와 덕담을 전했다.

강 군수는 “새해 첫날, 강진군에 올해 첫 아기의 건강한 출산 소식을 들어서 무척 반갑고, 산모님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라며 “앞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군에서 전국 최고의 육아수당은 물론,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산모 김 씨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 너무 기쁘다”며 “성장과 변이를 의미하는 토끼해에,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전국 최고액의 강진군 육아수

당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양육과 산후조리에 대한 부담이 한결 가볍게 느껴진다”며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강진군의 육아수당은 2022년 1월부터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생후 84개월까지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또 올해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주간 154만 원을,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의 경우에는 산후 조리비로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재 피해 담양 창평전통시장 임시 개장

몽골형텐트 점포·주차장 등 조성 설 앞두고 피해 최소화 위해 총력 이병노 군수 “재건축때까지 지원”

담양 창평시장이 지난해 12월 화재로 인해 이전을 시작한지 26일 만에 맞은면 공영주차장 부지에 컨테이너와 몽골형텐트를 설치해 상설시장으로 문을 열었다.

담양군은 지난 5일 오후 이병노 군수, 이개호 국회의원, 최용만 담양군의회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전남지회장, 기관사회단체장, 상인,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평 임시시장의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들어갔다. <사진>

설 대목을 앞두고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롭게 문을 연 창평 임시시장은 8593㎡ 부지 위에 컨테이너와 몽골형텐트 점포 60칸과 상인회 사무실 등이 들어섰다.

점포에는 농·축·수산물 등이 자리 잡았고, 노점형 점포에는 반찬·채소·과일·건어물·수산물 등이 들어섰다. 뒤편에는 5365㎡에 150대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해 다양한 품목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개장식 후에는 초정인사들의 장보기 행사도 함께 진행했으며, 담양군은 직원 대상 부서별 장보기 행사 등을 추진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임시시장이 개설되는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상인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창평시장 재건축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5050 다시 뛰자!” 장성군, 신중년 일자리 사업 추진

퇴직 전문인력 채용 양질의 공공 서비스 지원... 2월 중 공모

장성군이 중장년층 취업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행정 서비스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분야를 확장한 뒤 총 10명의 신중년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2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 참여자를 선정한다.

대상되는 모집 분야는 ▲장성사랑상품권 운영(유통, 금융 관련자) ▲전통시장 매니저(시설 관리, 유통, 회계 관련자) ▲사회복지 안전지킴이(경

찰, 청원경찰, 보안업체 관련자) ▲경로당 행복지원단(컴퓨터 활용 가능 사회복지사) ▲고독사 예방 지킴이(사회복지 관련 자격) 등이다.

채용이 확정되면 3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8개월간 배정된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5060세대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장성군민에게는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여 문의는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061-390-7466)로 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설 명절 선물, 나주로컬푸드로 하세요”

시, 빛가람점·금남점 직매장 21일까지 사은행사

나주시는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 금남점에서 오는 21일까지 ‘설 명절 로컬푸드 선물세트 판매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판전에서는 나주배, 한라봉, 딸기, 잡곡세트 산지 농·축산물과 배즙, 배숙, 장류, 한과, 떡국떡, 육류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40가지 선물세트를 소비자들에게 다채롭게 선보인다.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곱창김 1봉을 증정하고 배, 한라봉을 맛볼 수 있는 매장 시식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한 환경보호 실천 일환으로 아이스팩을 가져오는 고객에게는 화장지로 교환해준다.

시는 10일과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찾아가는 설 명절 선물세트 특판전을 열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고객 편의를 위한

택배 대행 서비스도 제공된다.

나주시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로컬푸드 장바구니 근거리 배송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 빛가람점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나주로컬푸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나주로컬푸드 장바구니)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배송은 1만원 이상 구매 시 이뤄지며 1~2만원은 배송료 3000원, 2만원 이상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통해 성장해온 건강한 농·특산물을 설 명절 선물로 준비했다”라며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품질 좋은 산지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